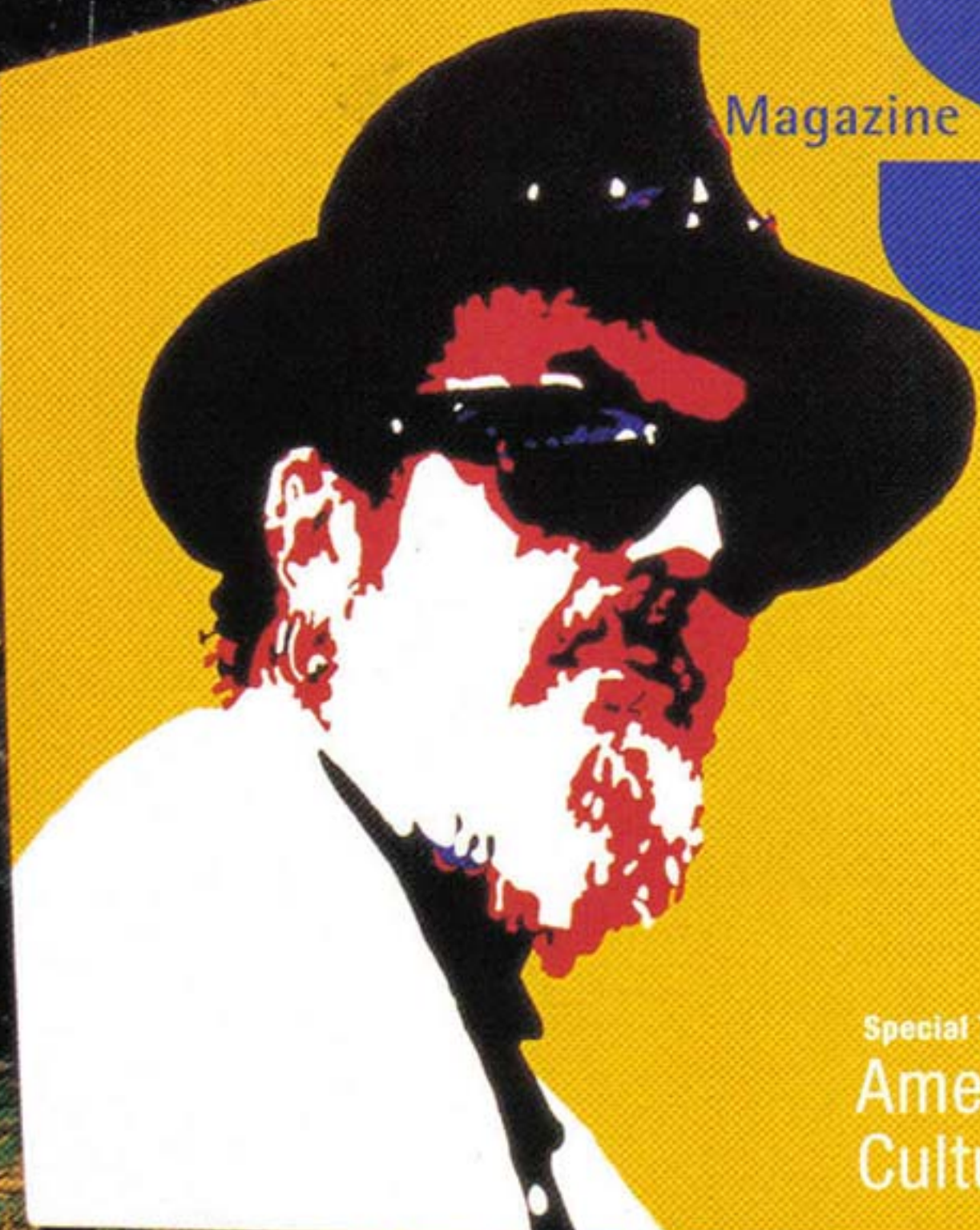


# S

Magazine



Special Theme  
American  
Culture



삼성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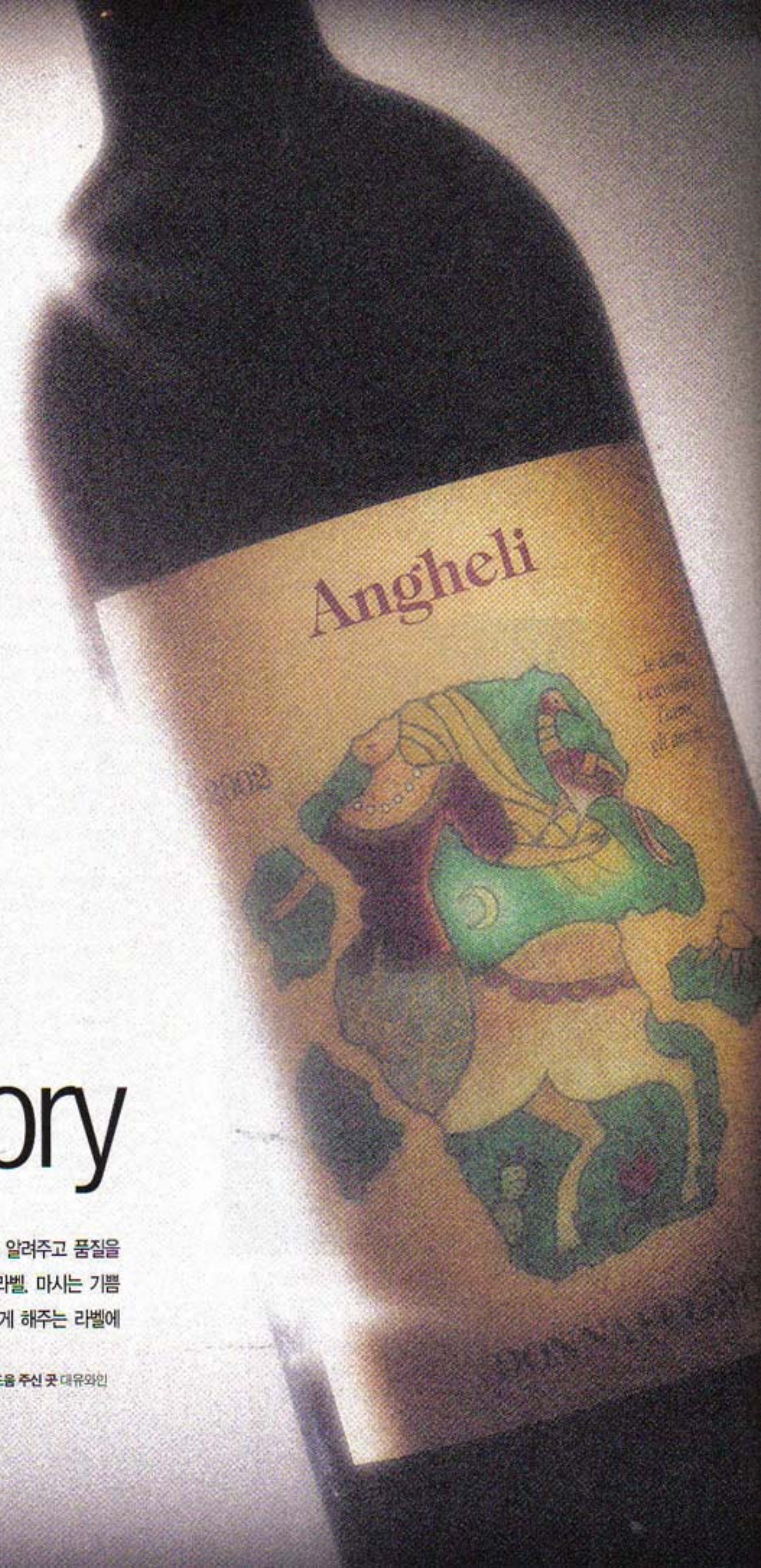
SAMSUNG

vol.36 April 2005

# Label Story

라벨의 숨은 사연과 매력 와인의 기원을 알려주고 품질을 보장하며 특징과 매력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존재, 라벨. 마시는 기쁨은 물론 보는 즐거움과 소장 가치를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라벨에 관한 이야기.

에디터 이경민 사진 이신구 참고서적 <보르도 와인 기다림의 지혜> 도음 주신 곳 대유와인 (02-722-2015, 오피스 (02-541-7762), 이영주선(02-319-2112))



라벨은 와인의 얼굴이다. 원산지과 생산자, 빈티지, 맛, 등급 등과 같은 와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와인의 이력서이기도 하고 독특한 컨셉트와 멋진 디자인으로 와인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광고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와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물론 그 특징과 매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와인의 얼굴인 라벨, 과연 그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그 동안 어떤 종류의 라벨들이 만들어졌을까.

라벨이 병에 붙여지기 시작한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다. 19세기 중반, 병에 붙일 수 있는 접착제가 나오면서부터 라벨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라벨 없는 와인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굳이 라벨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와인을 판매할 때 통에 담은 채로 판매했으며 서브할 때도 디켄더에 담아서 와인을 따라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라벨이 없던 시절에는 자신이 주문한 와인인지 아닌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을까? 이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코르크가 이용되었다. 코르크에 와인 이름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코르크를 가지고 자신이 주문한 와인이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코르크를 확인하는데 이는 같은 이유로, 코르크에도 라벨과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나오는 대부분의 와인에는 라벨이 모두 붙어 있다. 와인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붙어 있는 라벨 역시 어느 하나 비슷한 것 없이 각기 다른 개성을 자랑한다. 빈티지와 생산자, 등급 등 기본 이력에만 충실한 라벨이 있는가 하면 옛날 인기 영화배우의 사진이 장식돼 있거나 유명화가의 그림이 들어간 아트 라벨도 있다. 이러한 독특한 라벨들은 많은 이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큰 인기를 얻음과 동시에 그 가치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물론 아름답고 화려한 외관이 그 와인의 내실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라벨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와 예술적 가치를 알고 마신다면 와인을 더욱 흥미롭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마시는 즐거움은 물론 보는 즐거움과 소장자의 기쁨을 동시에 느끼게 해줄 흥미로운 라벨들을 만나보자.



### 와인과 명화(名畵)의 만남, 아트 라벨

와인 애호가라면 또는 아직 와인 초보자일지라도 라벨에 관심이 있다면 바로 필립 드 로칠드 사에서 생산하는 샤토 무통 로칠드의 명성은 이미 들어봤을 것이다. 보르도 특 1등급 와인으로 그 맛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도 샤토 무통 로칠드가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는 라벨 디자인 때문이다. 샤토 무통 로칠드는 세계 유명화가를 선정해 그의 그림으로 해마다 생산되는 와인의 라벨을 장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라벨에 실을 그림을 그릴 화가를 선정하는 순간은 뉴스가 되어 전 세계로 전파돼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와인 컬렉터들의 수집 욕구를 더욱 높인다. 이러한 전통은 와인이 단순한 상품이라기보다 예술이라는 로칠드 가문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1924년 필립 드 로칠드 남작(Baron Philippe Rothschild)이 처음으로 샤토에서 병입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유명한 포스터 디자이너인 장 카를뤼(Jean Carlu)에게 라벨 디자인을 의뢰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로부터 프랑스 와인 업계에서 라벨은 와인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출처의 증명서, 품질 보증서가 되었으며 라벨에 명화를 삽입하는 효시가 되었다. 초창기에는 장 위고, 레오노르 피니, 장 콕토와 같은 남작의 친구이자 화가였던 이들이 작품을 맡았으며 지금까지 달리 세자르, 미로, 샤갈, 피카소, 칸딘스키 등 현대 회화의 거장들이 라벨 작업에 참여해 그 가치를 높였다. 무통의 소유주인 필리핀 드 로칠드 여사는 화가의 예술적 자유를 존중했고, 그들 대부분은

